

문화예술행정과 지역문학의 실천 방안

한 정 호*

차 례

1. 들머리
2. 문화예술행정과 지역사회
 - 1) 문화예술행정의 개념과 영역
 - 2) 지역사회의 행정적 역할과 실천
3. 지역문학과 문학행정의 전망
 - 1) 지역문학 연구와 문학인의 자세
 - 2) 지역자치 문학행정의 방향
4. 마무리

1. 들머리

흔히 21세기를 두고 '문화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듯, 나라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다양한 문화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만큼 문화의 사활이 민족 또는 국가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이야말로 이 시대의 으뜸 주제어(key word)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국가 경쟁력의 주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

* 마산문화관 학예연구사

규모의 문화예술시설 조성, 문화 향수의 기반 마련,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 강조, 문화복지·문화민주화 실현, 지역문화의 육성과 진흥 등의 정책적 지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같은 시류에 발맞춰 말미암아 지역사회 안쪽에서도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보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가 경쟁력이라는 화두를 내세워 지역 가치를 널리 찾고, 이를 지역민의 삶 속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 지역문화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다뤄온 ‘삶의 문화’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문화는 자기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생활문화·실천문화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문화의 새 지평을 통해서 민족문화 나아가 세계문화도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즈음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행정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물론 중앙문화 흥내내기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올려 세우려는 움직임이 보다 돋보인다. 이렇듯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 제고와 함께 지역민을 향한 문화예술 공간의 확장을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을 힘주어 말하면서도 정작 실천 현장에서는 여전히 바람직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예술행정을 제대로 갖춘 지역자치단체는 찾기 어렵다.

이에 글쓴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문화예술행정의 개념과 영역, 그리고 지역사회의 마땅한 행정적 역할과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문화에 대한 문제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문화행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망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지역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지역문학인들의 이념과 자세를 가다듬고, 문화예술행정의 발전적 미래를 펼쳐보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문화예술행정과 지역사회

1) 문화예술행정의 개념과 영역

문화예술은 그 자체로 고유의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인본적 가치와 더불어 삶의 풍요를 가져오고, 사회·경제적 가치와 결합하여 우수한 문화예술을 재창조한다. 이러한 고유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문화예술행정이라 하겠다. 그러한 가치인식에 바탕을 둔다면, 문화예술행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예술의 질적 우수성을 달성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맡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전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문화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문화예술정책을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가 활용시간을 통한 문화예술¹⁾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여러 선진국에 견주어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뚜렷한 개념조차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고, 학문적 체계 또한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문화예술행정의 개념 파악에 앞서 짚어보아야 할 용어는 문화·예술·행정이라는 각각의 개념일 것이다.²⁾ 먼저 행정이란 용어는 '경영' 또는

1)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문화진흥법 제2조) 이 규정에서 드러나듯이 문화를 문화예술이라는 용어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문화정책상의 문화는 미(美)적 창조활동으로서의 문화, 곧 예술과 같은 범주로 이해된다. 그뒤 1994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사진, 건축, 문화산업'을 더 포함시킴으로써 대중문화의 특정 영역까지 확대 발전되었다.

2) 문화예술행정의 핵심적 기반을 이루는 문화와 예술의 개념 정립과 영역에 있어서는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을 나름대로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무엇이 문화에 속하고 무엇이 예술에 속하는지에 관한 개념 정립이나 영역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문화정책, 예술경영, 예술행정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해 더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책’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³⁾ 사전적 뜻을 짚어보면, 경영은 어떤 공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 능력을 일컫고, 정책이란 정치 기관에 의해 지시된 특정 목표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용하는 정부 활동을 일컫는다. 이에 글쓴이는 경영 내지 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로서의 용어인 ‘행정’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은 우리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등을 포괄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문화⁴⁾와 예술의 복합어로 문화예술을 개념화시키고 있는데, 예술의 개념보다 외연이 넓은 대중예술, 나아가 ‘준(準)예술로서의 생활예술’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행정이란 문화예술에 관한 제반활동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 범주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행정이란 현대사회 속에서 문화예술의 의의를 밝힘으로써 문화예술의 유효성과 능률성을 확대시키고, 그것을 갖고 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꾀하는 일인 것이다.

물론 이같은 뜻매김은 행정 주체가 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행정(business administration)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행정이란 문화예술 행위를 사회 속으로 이끌어내는 것, 곧 문화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의 재창조 활동을 일컫는다.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축적해온 문화예술적 유산을 섭취, 계승하여 주체적으로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곧 문화

3) 흔히 ‘행정’ 내지 ‘경영’이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administration과 management는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의 불확실성 속에서 예술행정(art administration)과 문화경영(cultural management), 문화행정(cultural administration) 등의 용어 사용에 있어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조은아, 「예술경영연구-예술경영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7, 40쪽 참조.

4) 구디나프(Goodenough)는 문화란 사람의 행위나 그 구체적인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델이요, 현상으로부터 추출된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는 한 사회의 성원들의 생활양식이 기초하고 있는 관념체계 또는 개념체계를 문화라고 간주한다.

민주화(democratizing culture)가 문화예술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⁵⁾ 따라서 실제로 집행되는 문화예술행정은 일반 국민과 참여자들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시켜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장시키는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높은 비율로 시행중인데, 이는 국가경영의 일환이라 하겠다.⁶⁾ 그 결과 '문화예술과 사회의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대중적 문화활동에 대한 전개, 참여자의 접근기회 확충,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문화예술행정이 강조해야 될 점은 ①예술창조 활동의 활성화, ②전문문화의 계승 발전, ③지역문화·생활문화의 진흥, ④문화에 종사할 인재의 육성·확보, ⑤문화에 의한 국제 공헌과 문화 전파, ⑥문화 전파에 의한 기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행정은 시민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복지정책, 감성을 키워주는 교육정책,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 주는 산업정책으로서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화예술의 저변은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전승하며 향유하는 사람과, 문화예술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사회이다.⁷⁾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지 않고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도 없고, 문화예술행정이 활성화될 수도 없다.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각종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이 활발

5) 홍승찬, 「예술경영의 올바른 이해」, 『무용예술』, 1997. 3, 26쪽 참조.

6) 문화복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며 어떤 정책적 방향과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3월 문화체육부에서 문화복지를 문화정책의 핵심정책으로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사회복지가 국민들을 위하여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문화복지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따라서 문화복지란 지역민들에게 문화활동과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라는 문화의 민주화 개념으로 모아진다.

7)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는 보다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에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 각자가 문화예술 생산과 수용의 주체가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관련 중심의 문화예술행정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문화복지와 문화민주화를 일구어나가야 하며, 소비적인 상품으로 거래되는 문화예술보다는 생산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창조력과 향수권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해지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지역문화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로써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즈음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쩍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요인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자치가 법으로나 행정으로 틀거리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제도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제도 변화야말로 사회 변화의 핵심 고리인 까닭이다. 특히 문화예술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과 민주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과 관료 행태의 변화 촉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행정은 다른 행정 부문에 견주어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전문성도 매우 낮은 상태에 놓여 있다. 아울러 지역마다 문화예술의 특성과 자산을 어떻게 '문화적 부가가치'로 승화시켜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대개의 지역사회가 품고 있는 과제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문화예술행정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삶의 시·공간적 터전을 가꾸는 일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사회에서의 행정적 역할과 실천

지역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특정한 공간영역을 일컫는다. 그런 점에서 지역은 사회적 관련 속에서 나날살이를 꾸리는 사람들의 삶터이고,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마련해 주는 사회·문화적 장소이다. 또한 지역은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된 경제 활동을 빌려 생산이 이루어지는 바탕이며, 정치권력이 만들어지고 동원되는 힘의 장이다. 이렇듯 생활세계와 경제·정치 체계가 겹으로 짜여진 자리로서의 지역은 자본 축적과 권력 유지 그리고 일상생활과 정체성이 겹치는 중층 공간인 셈이다.⁸⁾

이러한 공간 영역의 지역성에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가 인정될 때 이를 지역사회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는 지역성과 공동체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지닌다. 그런데 지역을 규정하는 범역은 통상 행정적 범역에서 기초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지역문화란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역사·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활동 소산 또는 과정이라 하겠다.⁹⁾

문화예술행정의 역할과 실천은 한편으로 점점 더 권력화하는 제도에 대한 제어를 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주적 개념의 제도 설립과 운영을 지향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예술행정의 이념과 방향은 문화예술의 의미가 세계적·일상적 개념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점차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문화소비 중심에서 문화자원 중심으로, 문화예술 생산자 중심에서 문화예술 수용자 중심의 문화복지 개념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역의 문화예술행정은 그러한 지역주의의 가치와 삶의 뜻을 보존하고 새롭게 지역을 가꾸어 가는 주요 영역이자 실천 동력이다.

‘지역의 시대, 문화의 시대’라는 화두와 함께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행정은 결과로서 보다 나은 우수한 표현이나 성과에만 얽매이지 말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생활의 영위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 결과 문화예술행정의 대상 영역에는 지역민의 생활의 장이나 교류의 장, 학습·연구의 장도 포함된다. 나아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행정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적 존재’라는 인식과 이념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같은 문화예술행정의 이념이야말로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문화예술행정의 핵심 일거리 가운데 하나가 문화행정이다. 이즈음 문화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작활동을 넘어 문화실천 측면의 행정이

8) 최병두, 「세계화 시대 지방 통치와 지역 발전」,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137쪽.

9) 이종인, 「지역문화와 문화행정」,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제』, 생각의 나무, 2002, 397-398쪽 참조.

요구되고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 창달을 힘주어 말하면서도 정작 문학실천 쪽에서는 마땅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 성과 또한 미약한 형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행사와 축제,¹⁰⁾ 시설물 건립과 같은 일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이를테면 문학제 개최나 문학관 건립에서부터 생가 복원, 시비 건립, 또는 유택 보존, 관리 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문학행정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실질을 얻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학행정에 있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춘 지역사회는 잘 보이지 않는다. 문학인들에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사회적 평판과 명성을 그대로 지역문학 기간시설이나 상징적 기념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만 잦아 보인다. 물론 이같은 일은 지역문학의 종합적인 이해나 성찰과는 거리가 있고, 여전히 체계적이고 기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¹⁾

흔히 지역 문화예술행정의 대부분은 그 전문성이 결여된 채 형식에만 치중되다 보니 많은 내부 갈등과 시행착오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무엇보다 지역문화에 대한 꼼꼼한 기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일이다. 지역문학 전문 연구자나 연구단체, 전공자와 같은 연구 주체를 넓히고 키워나가는 일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따라서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는 지역의 문화예술행정은 여러 문제와 쟁점들을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¹²⁾ 문화예술행정이 문화복지사

10) 문학행사와 축제는 문화관광의 중요한 영역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수단이 되고 있다. 오늘날 문화관광은 중요한 관광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으며, 문화관광의 시장 또한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화 이벤트와 축제는 동적인 특성을 지닌 전략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문화예술축제가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홍재, 『문화예술과 도시경제』, 문자향, 2002, 210-211쪽 참조.

11) 박태일, 「지역문화의 해와 지역문화 커뮤니케이션」,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133쪽.

12)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곧 생존과 경쟁을 위해 인문주의를 포기

회로의 도약을 위한 높은 수준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재 양성은 물론 행정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의 혁명적인 전환이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지역문화와 문화행정의 전망

1) 지역문화 연구와 문학인의 자세

지역문화는 지역가치를 이어주고 키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 통합을 앞서 이끌고 있는 중요 인자이다. 이는 중앙문화의 지방화·획일화·규격화가 아니라, 지역문화의 중심화·다양화·생활화 행정은 지역문화 연구가 나아갈 방향이어야 한다. 이즈음 학문공동체 안에서도 지역의 문화 행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의 문학사회는 아직까지 그 연구 논리의 타당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현실이다. 뜻있는 연구자라면 정작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학자들의 발전적 연구와 창의적인 제안도 별로 없다. 지역문화를 연구한다면 실제 문화정책에 도움이 되는 대안적 연구는 하지 않은 채 상투적 연구에 매몰되어 있는 탓이다. 시민들을 겨냥한 문화지식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실천적 문화활동도 적극 주도해야 마땅한데, 남의 일 보듯 하는 이가 뜻밖에 많다. 연구는 많되 쓰임새 있는 성과물이 적다는 말이다. 따라서 학자들 스스로 지역문화에 대한 무관심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학자들은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주민들을 의식화시

했던 경험을 반성하고, 잃어버린 인문주의를 회복하려는 강한 주제적 열망의 다른 표현이다. 이제 이같은 사람 중심의 주제적 열망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문화의 시대는 열릴 것이다. -김원자, 『이제 삶의 문화를 이야기하자』, 다지리, 2002, 19쪽 참조.

키는 한편, 문화산업에 대한 생산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행정관리들도 학자들의 연구를 참조하여 문화행정을 수립해야 하지만, 주민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문화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¹³⁾

문화연구자의 역할과 문화예술행정과의 관계를 일러주고 있는 글이다. 이는 지역문학 연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역문학 연구를 중요하게 내세우면서 실제 문학행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문학실천의 기반을 확충하는 성과는 달리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풍토 못지않게 아쉬운 점은 전문 연구자가 부족하고, 그들을 지원·육성하여 문학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역문학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연구 바탕이 되는 대상, 곧 기초 문헌자료를 모으고 챙겨 갈무리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⁴⁾ 오래도록 서울 중심의 문학사 서술에 머물렀던 연구 풍토로 말미암아 지역문학 사료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갖추어질 기회는 처음부터 막혀 있었다. 아울러 기록 보존의 인식이 모자란 탓에 우리의 학문은 여러 영역에서 빈자리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요한 문학매체들이 망실되어 그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는 오늘의 사정은 지역문학 연구 환경이 매우 참담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지역문학 연구자들은 그 범위를 넓혀 문화연구로 나아가 생활문학의 터뒹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문학능력을 드높이고 지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한 실천적 문학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지역문학 연구는 학술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의 문학문화재 발굴과 보존 쪽에서 접근해야 한

13)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0, 9-10쪽.

14) 지역문학 연구를 위한 기초 문헌은 그 지역의 지난날과 오늘날에 걸친 문학 관련 중요 문헌이나 구술 자료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역문학의 일차 문헌인 작품 집이나 발표매체, 그리고 작가 한 사람에 달한 실증 사료를 얻는 일에서 더 나아가 예사 사람들의 다양한 문필 활동, 곧 일기나 서간·자서전과 수필을 비롯한 여러 출판물, 여러 단위의 문서나 기록문헌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 지역문학 연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지역문화의 계승과 재생산에 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일지 모르나, 문학문화재¹⁵⁾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현황을 살펴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역문학 연구는 소지역 단위¹⁶⁾에 초점을 맞춰 그 활동이 활발해야 한다. 지역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없이 지역에 걸맞은 문학행정을 펼칠 수 없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지역의 문학행정은 곧 지역문학에 대한 지식기반 확충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지역문학 연구의 축적 없이 지역문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지역문학 연구는 문학행정의 기초가 되는 작업인 동시에 문화예술 재생산의 발판이 된다고 하겠다.

한편, 문화예술의 발전에는 예술인 개인의 치열한 창작 노력이 우선

15) 문화재란 나라 또는 겨레, 좁게는 지역 또는 지역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낸 독특한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그 값어치를 지닌 것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적, 국가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UNESCO에 따르면, 문화재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면서 국가가 종교적·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거기에 따르면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 규정하면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그 뉘뉘이를 나누었다. 말하자면 유무형의 것이 다 포괄되는 셈이다. 문학문화재란 그러한 문화재 가운데서 각별히 문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뜻한다. 흔히 일본에서는 문학유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문학유적은 그 뜻이 유형의 것에 머무는 느낌이 있고, 당대 가치를 지니는 생생한 문화재 화를 죄 끌어담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 이 글에서는 문학문화재라 쓴다. 그 내용에는 문학작품과 매체(저서, 자료집 포함)와 문인들의 유품들과 같은 것에서, 중요문인들의 생가·유택·문학공간·문학비 같은 기념물, 문학관, 그리고 당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뜻있는 문학 관련 이벤트나 축제를 모두 포괄한다.

16) 지역문학에서 지역이라는 접근 단위는 여러 가지로 나뉜다. 현재로서는 소지역(시·군 지역), 중지역(거대도시 지역), 대지역(풍토지역)으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효과적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국가연합 지역이나, 민족을 단위로 해외 동포들의 지역도 고려된다. 지역문학의 지역 정체감에 이바지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아직까지 행정지역이다. 그 가운데서도 시·군지역인 소지역 단위가 가장 유효한 범위로 생각된다.

되어야 한다. 예술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예술 창조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문화예술의 향상은 가능할 수 있는 까닭이다. 문학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문화예술이 경쟁력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문학인들의 이념과 자세는 시대와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지역문학의 쇄신과 발전을 이끌어야 할 문학인들의 무기력은 오늘날 지역문단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문화예술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 자신의 외연 확대, 곧 예술가가 예술을 향유하는 대중을 교육하거나 예술적 실천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문학인들의 자세도 이와 같은 것이다. 문예작품 창작의 주체는 문학인들이다. 그들이 생산한 작품과 문학실천 노력이 지역민들로 하여금 수준 높은 문학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미쳐야 한다. 문학인들의 혁신적 자기성찰과 실천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즈음 들어 문화예술 취향의 다양화와 더불어 문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매체 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글쓰기와 출판 유통방식이 갖는 무게는 퇴조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문학 창작이 지닌 사회적 쓰임새가 더욱 실질적·실천적이 되면서, 문학인의 역할도 그와 맞물려 무거워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문학인들은 한국문학의 보편적 규범이나 수준을 지향하면서 지역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새로운 과제 앞에 맞닥뜨리고 있다.

지역시 향유의 주체와 객체가 지역적 연고가 많은 이일 것은 필요조건일지 모르나, 충분조건은 아닌 셈이다. 외지인이라도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경험 현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문학 세계이다. 주요한 것은 주거의 유무나 태생적 성장 경험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랑과 지속적인 주인의식의 유무가 문제된다고 하겠다.¹⁷⁾

인용글에서 보듯이, 지역문학은 지연문학이다. 그 지역을 고향으로 섬기

17) 박태일, 『한국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44쪽.

는 이, 그 지역에 깊은 친밀경험과 장소사랑을 실천한 이들이 엮어내는 문학이 지역문학인 것이다.¹⁸⁾ 지역사회는 지역 연고와 지역 우월을 앞세우는 정실주의가 모든 행정에 앞서기 쉽다. 정실에 이끌리면 원칙은 오간 데 없이 달아나고 잣대도 오락가락하여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문학사회 아래서 정실주의를 벗어나 인물자랑·연고자랑이 아닌 지역문학인이 바람직한 토박이 의식이나 주인 의식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마당에는 문학 창작도 중요하지만 문학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문학은 지난날의 문학 풍토에서 벗어나려는 대항문학, 나아가 굳어진 문학소통 관행을 깨뜨리는 혁신문학이어야 한다. 바람직스럽고 청신한 기운이 지역문학 마당에 자리잡게 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학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실천문학이어야 한다. 이에 문학인은 지역민들에게 문학에 관한 이해뿐 아니라 문학 향유 능력을 키워주며, 지역 행정부나 문화예술행정을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자치 문학행정의 방향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역사회 문화예술행정의 핵심 일거리 가운데 하나가 문학행정이다.¹⁹⁾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18) 그런 점에서 지역문학인을 규정하는 데는 두 길이 있다. 해당 출신인가 아닌가 하는 태생 문제에 초점을 두어 살피는 경직된 '속지주의'가 그 하나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 지역문학 현실로 보아 실상과 벗어난 단선적·피상적 접근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개방적인 '지연주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해당 문학인의 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더 넓은 자리에서 그의 중요하고도 뜻있는 문학 창작·활동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인가를 문제 삼는다. 그것을 바람직한 지역 가치로 재구성하려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 형성력과 맞물린 자리에서 지역문학인의 성격 규정이 이루어진다. -박태일, 앞의 책, 50쪽 참조.

19) 문학을 비롯한 예술은 경제개발의 수단 때문에 행정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도 공감하는 바다. -James Heilbrun and Charles

루어지고 있는 문학 관련 행사와 축제, 공간 건립과 같은 일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특히 문학행사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문화관광산업에 기여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이같은 문학행정은 지역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역자치단체들의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문화예술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지역민들에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학제 개최나 문학관 건립에서부터 생가 복원, 시비 건립, 또는 유택 보존·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문학행정이 실질을 얻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의 문학행정은 여전히 체계적이고 기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문학의 종합적인 이해나 성찰과는 거리를 둔 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특정 문학인의 이름을 내거는 수준의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을 따름이다.

오늘날 지역 어디를 가거나 여러 단체에서 다양하게 문학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한 행사를 이끄는 문학단체가 지닌 문학에 대한 이해 수준과 운용 방식이야말로 뜻밖에 중요하다. 우리 문학의 취향을 뒷받침해 줄 젊은 학습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편견과 억압을 실천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지역의 여러 문학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낡은 관행과 문화 지체현상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파벌과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함으로써 수준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문학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가운데, 지역의 문학단체를 장악하고 관변측 문학행정을 독점하며 지역사회 문화계 안에서 군림하는 일이 잦다. 결국 젊은 문학인들의 창조적인 문학활동을 가로막게 되어 지역문학 발전에 큰 걸림돌 구실을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문학단체는 문화를 창달한다는 이름 아래 문학권력 유지에, 또는 개인

적 권력을 누리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지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문학단체는 지역 안쪽의 문화예술 단체 또는 시설과 연계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학적 경험과 향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해 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미 실질을 잃어버린 채 권력 키우기에 바쁜 문학단체의 행태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나간다면, 그 성과는 매우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지역문화의 현장 앞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동인이나 창작모임 또한 힘껏 나설 일이다.

다음으로, 지역자치행정부 소속의 문화공보과의 역할과 문화시설 운영이 중요시된다. 특히 문학행정 쪽에서는 문학관의 기능과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의 문학 전통과 문학 자산을 기리기 위한 사업이야말로 지역 문학행정의 일거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행정은 누구나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문화예술행정이야말로 다른 분야보다 전문가가 나서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전문가 중심의 행정으로 그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학행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문화담당 공무원의 역량 부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이를 직접 집행하는 문화담당 공무원의 문화적 인식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올바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예술행정을 추진할 수가 없다. 이로 말미암아 문학행정은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지역자치단체의 즉흥적 착상이나 정치적 생색내기 행사, 또는 이권단체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시행정에 머물 경우가 많다. 문화공보 담당자들은 과시성 행사 개최나 예산타령을 하지 않고도 지역 사회의 문화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지역자치단체는 문학행정의 바탕이 되는 문학문화재 실태조사, 지역문학의 전통과 자산에 대한 자료 수집·발굴에 더욱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의 문학전통과 자산은 지역의 문학 발전에 남달리 이바지한 사람·사건·장소들을 모두 아우르는 기초조사와 갈무리를 통해 얻어지기 때

문이다. 이에 바탕한 문학행정은 다음과 같은 장기적 기대효과를 갖는다. ①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조사·연구와 값매김을 통해 지역문화의 뿌리를 굳건히 한다. ②바람직한 지역 이미지 생산과 지역 가치 창발을 위한 구심점이 된다. ③지역의 역사·문화·관광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

끝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문화시설을 들 수 있다. 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조물의 의미를 넘어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장(場)'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은 문화예술로 말미암은 지역 이미지 개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뿐 아니라 공동체 이익, 곧 지역의 활력과 매력 증가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시설은 지역문화의 근원이며,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자체 실시 이후 문화시설이 늘어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나, 지역민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공간 창출이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역민들은 단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배우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요한 까닭이다. 문학관련 시설 가운데 대표적으로 문학관을 들 수 있다. 문학관의 본디 쓰임새는 지역의 문학인 또는 문학단체와 연계한 지역문학의 활성화,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학 향유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50여 개의 문학관이 있다. 이들은 대개 시·군 차원의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문학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 대개의 문학관은 열악한 환경시설, 부족한 전시공간과 재정, 취약한 연구인력 속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자화상이다. 일반적으로 학술·연구, 교육·학습, 문화 체험·홍보 등을 문학관의 기능으로 볼 수 있겠는데, 문학관 담당자들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첫째, 학술·연구 기능이다. 실제적으로 학술·연구 기능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문학관이라는 기간 시설의 의의와 기능은 뚜렷하게 퇴조할 수밖에

없다. 지역문학 차원에서 볼 때, 학술·연구 기능이 아니면 맡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다. 지역문학 관련 자료 발굴과 수집, 자료 전시, 자료 발간, 학술세미나 같은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학의 전통이 갈 무리되고, 소중한 문학자산의 보존이 잇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지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덩그런 문학관이 아니라 다채롭고 드높은 문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문학 연구의 산실로서, 장차 지역문학 자본의 확충과 문화교양의 구심점으로서 미래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학습 기능이다. 문학에 대하여 기본적 의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의 경우 문학관은 그야말로 소중한 학습공간이고 문학 향수를 충족시켜 주는 열린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관은 지역문화정보를 교류하거나 사회교육에 큰 몫을 맡고 있다. 사회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학습과 참가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결국 문학관은 교양의 공간, 문화의 공간, 학습의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문학 욕구와 여가를 충족시켜 주는 시설물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각종 문학행사 또는 대회를 통한 문학실천과 문학강연 또는 세미나, 문학강좌 개설, 문학기행 등의 교육·학습의 장 마련, 쉼터 또는 여가 활용의 장으로서 그 쓰임새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 체험·홍보 기능이다. 문학관 문화 체험과 지역 홍보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흔히 문학관은 특정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중요한 몫을 맡는다. 문학관 관람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특성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문학관이라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대한 문화 체험은 지역 관광의 정수이다. 현대인들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자원²⁰⁾으로서, 나아가 지역문화를 흥

20)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문화관광은 일반관광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관광상품이란 소비자가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벗어나 공급지, 곧 관광자원이 있는 곳으로 방문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재화들과는 소비패턴이 약간 다르다. 그러므로 문화시설의 관광자원은 자체적 매력이나 위치, 이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하는 기제로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행정은 관련 단체의 업적 위주 성과물에 대한 소극적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문화예술행정을 위임 처리하는 일에 그친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역 내부의 문화욕구와 문학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문화행정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문화 커뮤니케이션의 회로 속에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요소, 곧 지역민, 자치행정부, 그리고 문학, 문학단체를 비롯한 여러 영역의 제도와 양식 모두에 신선한 바람이 깃들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지역자치의 문화행정은 지역을 문제틀로 삼아 새롭게 제 자리를 닦아나가야 할 시도적인 또는 진행과정의 행정이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복지에 애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평한 문화예술행정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문화단체, 문화연구자, 시민대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모든 정책 결정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만큼 지역의 문화예술행정은 지역 가치를 이어주고 키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통합을 앞서 이끌어 나갈 중요 인자인 까닭이다.

4. 마무리

지금껏 글쓴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문화예술행정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의 행정적 방향에 대해 짚어보았다. 아울러 지역문학에 대한 인식과 현상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문화행정의 현주소와 지역문학 연구의 과제에 대해 살폈다. 이 글을 통해 문화예술행정 전반을 온전하게 감당해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진전된 연구가 거듭 이어지기를 바란다. 논의를 줄여 마무리로 삼는다.

먼저, 글쓴이는 문화예술행정과 지역사회 행정적 역할과 실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즈음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쩍 커졌다. 하지만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행정은 다른 행정 부문에 견주어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전문성도 매우 낮은 상태에 놓여 있다. 아울러 지역마다 문화예술의 특성과 자산을 어떻게 '문화적 부가가치'로 승화시켜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대개의 지역사회가 품고 있는 과제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문화예술행정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삶의 시·공간적 터전을 가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과 민주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과 관료 행태의 변화 촉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문학 전문 연구자나 연구단체, 전공자와 같은 연구주체를 넓히고 키워나가는 일이 절실하다. 나아가 문화예술행정이 문화복지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높은 수준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의 혁명적인 전환이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글쓴이는 지역문학 연구의 논리, 지역문학인의 이념과 자세, 지역자치 문학행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문학과 문학행정의 전망에 대해 짚어보았다. 지역문학 연구는 소지역 단위에 초점을 맞춰 그 활동이 활발해야 한다. 지역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없이 지역에 걸맞은 문화예술행정을 펼칠 수 없다. 결국 지역문학 연구는 문학행정의 기초가 되는 작업인 동시에 문화예술 재생산의 발판이 되는 까닭이다.

또한 문학마당에는 문학 창작도 중요하지만 문학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문학은 지난날의 문학 풍토에서 벗어나려는 대항문학, 나아가 굳어진 문학소통 관행을 깨뜨리는 혁신문학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학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실천문학이어야 한다. 이에 문학인은 지역민들에게 문학에 관한 이해뿐 아니라 문학 향유 능력을 키워주며, 지역 행정부나 문화예술행정을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문학의 관련 기반 시설은 지역의 문학실천을 위한 교육과 학습의 중심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 내부의 문화욕구와 문학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문학행정이 제대로 갖추어질 것이다.

흔히 지역문화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민이고, 행정은 주민 문화활동의 매개 역할을 하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문화예술행정은 체질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에서는 문학행정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역문학 현안사업 차원의 문학행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목표와 방향 제시,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 근대사 복원력은 이러한 지역문학 연구와 문학실천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지역문화와 지역적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것의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자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뜻깊은 일이다. 문제는 지역문화 담론과 그 실천이 지나간 시기의 관행과 인습의 고리를 어떻게 끊고, 시대적 정합성을 얻어 나가면서 지역의 문화자치에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문화의 세기'를 표방한 문화예술행정이 장식적 화두에 머물지 않고 문화민주화로 이어져,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대내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핵심어: 문화예술행정, 지역사회, 지역문학, 문학행정, 생활문학, 문화정책, 문화민주화, 지역자치, 문학관, 문학전통

<도움글>

-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출판부, 1999.
- 구문모·임상오·김재준,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을유문화사, 2000.
- 김국태와 여럿, 『대중문화와 문화기획』, 글누림, 2005.
- 김문환, 『미래를 사는 문화정책』, 나남, 1996.
- 김복수와 여럿,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보고서, 2003.
- 김옥량과 여럿, 『문화예술공간과 문화연구』, 한울, 2004.
- 김원자, 『이제 삶의 문화를 이야기하자』, 다자리, 2002.
- 김종호, 『문화로 읽는 한국사회』, 열린책들, 2003.
- 김주호와 여럿, 『예술경영』, 김영사, 2002.
- 김희태·조웅·김경철, 『문화재학 이론과 실제』, 향지사, 1997.
- 박신의와 여럿,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제』, 생각의 나무, 2002.
- 박태일,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 양종희, 『문화예술 사회학』, 그린, 2005.
- 이강수 엮음, 『대중문화와 문화산업론』, 나남, 1998.
- 이종인, 『지역문화와 문화행정』,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제』, 생각의 나무, 2002.
- 이현식, 『문화도시로 가는 길—지역문화와 문화에 대한 성찰』, 다인아트, 2004.
- 이홍재와 여럿, 『문화도시 만들기』, 경인문화사, 2001.
- 이홍재 엮음, 『문화예술과 도시경제』, 문자향, 2002.
- 이홍재, 『문화예술정책론』, 박영사, 2005.
-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0.
- 전경수, 『문화시대의 문화학』, 일지사, 2000.
- 정대호, 『세계화 시대의 지역문학』, 문예미학사, 2002.
- 정철현,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2005.
- 조명계, 『문화예술경영』, 띠앗, 2006.

- 조은아, 「예술경영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7.
-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 최혜실 엮음,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 문학과지성사, 1999.
- 편집부 엮음, 『문화예술』 2006년 2월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6.
-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학 만나기』, 김영사, 2001.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2.
- 한정호, 「경남지역 근대 문학문화재 지표조사」, 『경남의 교육과 문화연구』, 경남지역문제연구원, 2004.
- 홍승찬, 「예술경영의 올바른 이해」, 『무용예술』, 1997. 3.
- 데이비드 트렌드, 양지영·고동현 옮김, 『문화민주주의』, 한울, 2001.
- 새뮤얼 P. 헌팅턴·로렌스 E. 헤리슨 엮음, 이종인 옮김,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2001.
- 야노 토구 엮음,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옮김,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1997.
- 이토오 야스오, 이홍재 옮김,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역사넷, 2002.

<Abstract>

A Cultural art Administration and Practice Plan of Regional Literature

Han Jeong-ho

This paper was look to the concept and role of cultural art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direct of regional community in covering whole society. In additional to, I inquired the recognition and phenomenon of regional literature concretely and saw regional administration's present address and the reality of various regional cultural.

The cultural art administration was worthy of invisible and non-statistics things. It was introduced to humanity, beauty and room.

Today, the reason the poor of regional culture was that the meeting in regional society was scanty. The practice of cultural creation was the first start to act the recovery of human communication of community.

The subjective of the creation of cultural art was the citizen and the administration was intermediated to citizen cultural activity. This point, The cultural art administration of community was the first constitutional improvement. Mostly, regional culture lay emphasis to competition. In future, the role of literature administration in community was expected to large active.

The regional literature was linked to regional value and grew. It major lead to the unification of cultural of community. Also, literature administration was sub-position into this cultural of community. To excavate and study of the literature-tradition of community and to

educate, operate, democratize local cultural administration of their laid to quick tasks.

The position of public opinion of their solution the new recognition of local cultural and local living was insignificant things itself. Local cultural discussion and its practice in question, To stop the ring of the custom of past time and give of epoch correctness was right directed to contribute cultural self-government of community.

In conclusion, cultural art administration including 'culture century' do not stay topic of conversation and link into culture democratize. their result are contribute to national brand in foreign and level improvement of cultural art in internal.

- Keywords: cultural art administration, Regional community, Regional literature, literature administration, living literature, Cultural Policy, democratizing culture, local self-government, literature museum, literature-tradition